

3선 연임 제한 ‘무주공산’… 입후보자 난립

목포시장

내년 목포시장 선거는 현 정종득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무주공산’이 되면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김삼열(59)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해양 정책 전문가로 목포지방항만청장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했다. 32년 공직생활을 통해 중앙부처와 다양한 인맥을 형성한 것이 장점이다. 그는 세계 명품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박홍률(59)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34.5% 지지를 받았지만, 현 시장에 석패한 뒤 목포희망 21세기포럼을 맡아 권토중래를 모색하며 지지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유신반대 민주화투쟁, 국정원 총복지부장 등 이력도 화려하다.

배용태(58)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한 ‘행정계의 달인’이라는 평가다. 목포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지내 목포시 현안을 꿰뚫고 있는 것은 물론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 시 목포국제축구센터 유치, 목포요트산

목포시장 출마 예정자

정당

이름(나이)

주요경력

민주당

김삼열(59)

· 목포시항만대표
· 전)목포지방 항만청장

안철수 신당

김종익(48)

· 목포살림연구소장
· 전)목포경실련 사무처장

안철수 신당

박민서(56)

· 목포대학교수
· 전)안전행정부 연구위원

민주당

박홍률(59)

· 목포희망21세기포럼 대표
· 전)국정원 총복지부장

민주당

배용태(58)

· 전남도 행정부지사
· 전)목포시장 권한대행

민주당

이광래(60)

· 국제신탁감사
· 전)목포시의회의장·도의원

민주당

이상열(60)

· 변호사
· 전)17대 국회의원

민주당

장복성(51)

· 대성동재개발대학원장
· 전)목포시의회의장

민주당

최기동(63)

· 시의원
· 전)목포시의회의장

민주당

홍영기(57)

· 새목포비전연구소장
· 전)서울경찰청장

※ 후보는 가나다 순

대부분 민주당 후보… 경선 치열할 듯 ‘安 신당’ 후보들도 물밑 행보 가속

입 기반 조성 등 경험을 살려 지역봉사의 진정한 일꾼으로 뛰고 싶다는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광래(66) 국제신탁 감사는 목포시의회 의장, 전남도의회를 비롯해 평민당 창당에서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인맥을 쌓은 정계의 마당발로 통한다. 도시개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목포를 수축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이상열(60) 변호사는 행사·사시 양

파에 합작한 수재이자 17대 지역국회의원을 지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행정·사법·입법 분야에 두루 해박한 경력과 자질을 갖춰,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무료법을 상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친 것도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장복성(51)위원장은 30년 동안 민주당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원로급 젊은 일꾼이다. 33세 때 최연소 시의

회에 입성해 내리 4선을 했으며, 의장을 3차례나 역임한 ‘풀뿌리 정치인’이다. 풍부한 의정경험을 살려 ‘제2의 목포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다.
 최기동(63)의원은 6대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현역 3선 시의원으로 ‘생 활정치의 달인’이다. 1988년 평민당 입당이후 초지일관 외길을 걸어온 민주당 지킴이자 원도심 토박이다. 주민들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어 원도심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영기(57)대표는 전남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중요 국가기관 수장을 역임한 ‘정책 기획 전문가’라는 평가와 함께 중앙 및 지역 정·관계, 민간조직 등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재정을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사는 도시로 부흥시키겠다는 게 주요 전략이다.
 안철수 신당 깃발을 내세우고 나서려는 후보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종익(48)소장은 목포지역 대표 시민운동가로 1999년 목포경실련 창립을 주도한 산증인이다. 지역경제, 도시재생, 부패방지 등 의제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점을 알려왔다.
 박민서(56)교수는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목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20목포비전 등 복지 정책 개발과 연구에 참여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함께 많은 기여를 해왔다.
 /목포=오광록·고규석기자 yousou@

무소속-민주당-安신당 3파전 예고

여주시장

무소속인 김충석(72) 현 시장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측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선거전은 ‘3파전’ 양상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후보로는 현재 김영규(57) 여주시의원과 송대수(57) 전남도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안철수 신당’측에서는 김동채(55) 여수경영인 협회회장과 주철현(54) 변호사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수 초도 출신으로 민선 3기 여수시장을 역임한 김충석 시장은 재임기간 최대 현안인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를 통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면서 지방 중소도시 여수를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박람회 이후 지방채 495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높여 전국평균 14.33%의

채무비율을 절반 가깝인 8.32%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에선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낸 4선의 김영규 시의원이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 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사재를 털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기관 금강원을 지난 98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3선 광역의원인 송대수 전남도의원 은 지난 1995년 시의원을 거쳐 제9대

린 리더십과 경청하고 소통하는 송대수’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소리를 가장 잘 듣는 인물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 여주시장 출마 예정자

정당

이름(나이)

주요경력

안철수 신당

김동채(55)

· 관주 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
· 정책네트워킹 내일실행위원

민주당

김영규(57)

· 여수시의원(4선)
· 전)여수시의회 의장

무소속

김충석(72)

· 여주시장
· 전)민선 3기 여수시장

무소속

박정일(55)

· 영동 ENC대표
· 전)여수시 경영인 협회장

민주당

송대수(57)

· 전남도의원(3선)
· 전)전남도의회 부의장

안철수 신당

주철현(54)

· 변호사
· 정책네트워킹 내일실행위원

※ 후보는 가나다 순

현 시장 재선 가도에 6명 도전장 무소속 많아 선거전 과열 분위기

도의회 부의장과 전남도의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장과 관광안전 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의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각종 우수 의정행적 대상 등을 수여해온 송 의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열

김동채 여수경영인협회회장이 창당목적으로 부합하는 새정치 모델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전남시민포럼 대표를 맡아 신당 준비 초기부터 기여해 왔다고 자평한다. 김 회장은 완제품 제조공단

유치와 스포츠 산업도시 육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포부다.
 여기에 대검 강력부장과 광주지검장 등을 지낸 주철현 변호사가 ‘안철수 신당’ 측 후보로 나서고 있다.
 주 변호사는 지난 6월 여수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읍·면·동 이장단과 산단 기업, 여수장애인 복지관 등의 고문변호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국장 재직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차제도를 시행한 주 변호사는 ‘2012년 자랑스런 여수인상’과 ‘2013년 대한민국법률대상 인권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 변호사는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육 특성화 정책 및 정주 여건 조성 등으로 품격있고 내실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밖에 박정일 전 여수경영인 협회회장과 한영래 재경 여수시향우회 회장 겸 여수고 총동문회장이 활발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여수=최권일·김창희기자 chkim@

■이슈& 변수

민주당 경선 탈락후보 무소속 출마 예상

낙후 경제 활성화 등 공약 싸움도 불만

차기 목포시장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이탈한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책과 공약 싸움도 불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이 1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일부 후보들 간의 연대 등도 예상된다.
 현재 후보군은 난립하고 있지만 선거가 본격화되고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 3~4명의 후보로 압축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오광록·고규석기자 kroh@kwangju.co.kr

■이슈& 변수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최대 쟁점 신당 바람 여부도 큰 변수 작용할 듯

차기시장 선거전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표류하고 있는 박람회 사후활용 활성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사후활용 방안이 박람회 개최 이후 돌연 박람회장의 매각 방침으로 변경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민의 실망감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박람회장 사후 활성화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100조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부상한 여수국가산업단지 경기가 최근 심상치 않은 것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맞물려 있다.
 산단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수 미래는 결국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해양 관광도시’로의 도약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한승원 칼럼’은 지면 사정상 16일(월)자 19면 오피니언란에 게재합니다.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룸11개(1층 상가)◦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룸18개(만실)◦월수익 600만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융복지구★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월수익 850만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월수익 1300만 보3억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룸15개(주택1개)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룸15개 (만실)◦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저예산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할용지라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원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